

지성과 권력

과거 20년의 한국의 역사는 권력을 배경으로 한 전쟁, 혁명의 연속이었다. 오늘날 40대 이상의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러한 한국 역사의 격동 속에서 살아 왔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권력의 무상함과 약삭빠른 권력자들의 변모를 목격해 왔다. 어제의 충신이 오늘의 역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어제의 불온분자가 오늘의 혁명 투사가 된다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았다. 이러한 권력의 변천에서 권력이 무상하다는 것보다 그 가변성과 냉혹성에 대해서 국민들은 냉정한 반응을 보여 왔던 것이다. 권력은 시대적인 조류를 재빨리 캐취하여 지성을 그 시너처럼 부리는 재주를 가지고 있다. 정치적인 스토건은 언제나 이러한 지성을 도구로 삼으려 든다.

에릭 프럼은 이성과 지성은 다르다고 지적한다. 지성은 도구요, 사물에 대한 지식의 축적에 지나지 않지만 참 이성은 이러한 지성을 통해서 사물의 차원과 핵심을 통찰하는 힘을 말한다고 하였다. 이성은 자기 기만을 깨뜨리고 자기 교정을 하는 생활 스타일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정치 구조나 권력에 있어서 이성의 비판이 결코 시너 구실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칼 야스퍼스는 <독일의 미래>라는 저서에서 키징거-브란트 정권을 향해서 이성적인 비판을 가했다. 변영의 길을 줄달음치는 독일의 장래에는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새로운 독재 체제가 등장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염려하고 있다. 그는 거듭 지적하기를 진리에는 언제나 모험이 따른다고 했다. 모험이 없는 권력의 정책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그 모험이 도박으로 그치면 그것이 무책임한 모험이

된다는 것이다.

한편 권력이 모험을 피하고 안전 제일이라는 무사주의로 나갈 때 미래를 향해 개방된 이성은 모험을 촉구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성적인 신앙은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자기 기만을 깨우치는 동시에 권력의 오만과 거짓 약속을 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앙의 뒷받침을 받은 이성은 이처럼 미래를 향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키징거—브란트 연합 정권이 형성됨으로써 오히려 건전한 야당의 소멸을 우려하는 야스퍼스의 관찰이 오늘의 우리 현실에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다. 미래를 향한 신앙의 뒷받침을 받는 이성으로써 권력이 그릇된 길을 가려고 할 때 이에 대해서 이성적인 비판을 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참 민주주의의 싹이 트기 시작할 것이다.